

로버트 바노이, 신명기, 강의 1

문학비평이론, JEDP

© 2011,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dt

1. 강좌조사: 4개 주제

이 과정은 네 가지 광범위한 주제로 신명기를 다룰 것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방식에 대한 다소 간략한 조사를 포함하여 저자와 날짜를 검토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저자와 연대에 관해 엄청난 논의를 받아온 책입니다. 아마도 오경의 다른 책들보다, 아마도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 더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책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와 날짜를 고려할 것입니다.

신명기에 관한 본 강좌의 두 번째 주제는 “신명기의 문학적 구조와 범위”입니다. 이 책의 문학적 구조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구조와 범위가 해석, 의미, 그리고 의미에 관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주제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 특히 작년에 구약 역사에서 고대 근동 조약과 신명기의 구조와 관련하여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Meredith Kline의 작품 *Deuteronomy: The Treaty of the Great King* 의 개념이나 율법이 그의 백성과의 언약이라는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언약의 정확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문학적 구조는 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세 번째 주제는 “주석적 연구가 선택한 구절을 돕는다” 입니다. 그냥 시작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이 강좌의 많은 부분을 주석적 토론에 할애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신명기가 예언서와 소위 ‘신명기적 역사’에 미치는 영향” 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이후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신명기는 예언적 설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것은 “신명기적 역사 기록”이라는 꼬리표가 자주 붙는 역사서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구약의 역사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주제는 저자와 날짜, 문학 구조, 주석 연구, 후속 구약 문학에 대한 영향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문학비평

A. JEDP 조사

첫째, 구약성서의 문학비평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나는 약 100년 전에 Julius Wellhausen이 고전적인 형태로 공식화한 JEDP 가설에 대한 100년 간의 논쟁 이후에도 그의 기본 입장이 여전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오경의 기원과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실히 타당한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 이론의 다양한 세부 사항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정 및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본 이론은 구약학계에서 선도적인 학술 단체, 출판물, 학회에 관한 한 여전히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접근 방식의 전형적인 것은 Gerald A. Larue가 그의 저서 *Old Testament Life and Literature* (1968)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학문은 다큐멘터리 가설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입니다. J, E, D 및 P라는 라벨은 주요 소스에 허용되며 개발 순서는 Graf-Wellhausen 논문에서 제안된 순서입니다.” 지금은 1968년이다. 그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며 Larue의 의견으로는 Wellhausen의 이러한 기본 전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경의 다양한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러한 소스는 종종 J[여호와와 소스, ca. 850 BC], E [엘로힘 소스 ca. 750 BC], D [신명기 소스, 621 BC] 및 P [제사장 소스, 유배 또는 포로 이후 ca. 기원전 550-450년]. 구성 시점까지의 출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J는 빠르며, E는 늦고, D는 조금 늦고, P는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는 여전히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제안된 것입니다. 그래프와 벨하우젠.

Larue는 계속해서 이 이론의 수용이 오경 문학에 대한 그의 이론의 기본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오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JEDP 프레임워크, 즉 Wellhausen이 설정한 구조가 문헌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인정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그 가정에서 시작하고 있고 JEDP가 단지 이론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많은 핸드북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이론이나 가정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립된 사실로 제시되며, 여러분은 그 확립된 사실을 토대로 시작합니다. 라루는 “오경 분석의 모든 이론 중에서 문서 가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 도달한 결론을 활용하고 묘사할 것”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독자에게 이 다큐멘터리 가설은 특정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된 명제, 즉 가설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이론이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주장되는 특정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접근 방식의 결론을 채택한 다음, 수용된 이론을 바탕으로 구약 문헌을 분석합니다.

이제 벨하우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과 이 때 이후로 구약성서 학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가

주장하는 대로, 즉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문학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확실히 벨하우젠 이론의 급진적인 가장자리는 무너졌지만 기본적으로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언가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전체 JEDP 논쟁에서 신명기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초석이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RJ Tompson (VT Sup 19) RJ Thompson, JA Thompson과는 다른 Thompson입니다. RJ Thompson은 *Graf 이후 한 세기의 비평에서 모세와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Graf는 Wellhausen의 전신이었습니다. Wellhausen은 Graf의 작업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톰슨은 1970년에 이 책인 *모세와 율법(비평 세기의 모세와 율법)*을 썼습니다. *Vetus Testamentum*의 보충 자료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 *Vetus Testamentum*은 아마도 구약 연구에서 뛰어난 기술 저널 두 개 중 하나일 것입니다. *Vetus Testamentum*은 종종 'ZAW' (*Zeitschrift für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라고 불리는 구약 학술 연구 저널입니다. 둘 다 도서관에 있어요. 하지만 VT [*Vetus Testamentum*]는 분기별 저널입니다. 가끔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들은 보충제를 출판합니다. 이것은 보충 번호 19입니다. 그것은 장편의 책이다. 보충

시리즈는 다양한 구약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기술 논문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모세와 율법에 관한 것이었고 벨하우젠 시대부터 1970년에 기록될 때까지의 비판의 역사입니다. 163페이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학자들이 선호합니다. 1905년 Orr, 1910년 Stace, 1918년 Noybauer, 1923년 DeBoise, 1938년 Orbock, 1947년 Levi e, 1950년 Ginsburg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비판자들의 상황을 뒤집고 예루살렘과 로마의 보수적 요새를 침식했으며 복음주의 개신교에 침투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벨하우젠이 처음으로 옹호한 지 1세기 후에 구약 오경에 대한 그라프-벨하우젠의 접근 방식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톰슨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중요성이나 관심이 없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벨하우젠 이론이 여전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C. 현대의 영향 최근 몇 년 동안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많은 주석이 작성되었습니다. 주석들은 벨하우젠 이론을 구약성서 해석의 기초로 채택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도서관에 가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위치한 존 녹스 출판사의 *평신도 성경주석* 과 같은 것을 집어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벨하우젠 이론 의 수용을

출발점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Torch Bible Commentaries* , 런던의 SCM Commentary, 필라델피아의 Westminster Press인 *The Westminster Guides* , 또는 내슈빌의 Abingdon Press의 *Bible Guides*는 모두 사람들이 *주일학교 수업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대중적인 주석입니다.* Wellhausen 입장을 출발점으로 채택합니다.

벨하우젠 입장에 대한 고수는 전국의 대학에서 제공되는 종교 및 종교 문학 과정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종교 문학 과정을 수강하고 교과서가 벨하우젠 이론을 채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 이해하기* BW Anderson은 대학 입문 과정에서 사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텍스트입니다. Norman Gottwald의 『*국가를 향한 빛*』은 또 다른 작품입니다 . 다른 사람들도 언급할 수 있지만 요점은 오늘날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벨하우젠 이론이 강의와 교과서 모두에서 구약성서 문헌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D. 과제 인식의 실패 이러한 학습 안내서와 교과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은 이 이론이 사실로 제시되고 확고하고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난 세기의 구약학문에 대한 방대한 문헌을 접하지 않고 이에 관해 진행된 모든 논쟁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제시된

많은 논쟁에 실제로 잘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비판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론의 많은 교리가 도전받고 논쟁을 벌여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비판적인 학자들 사이에는 자신들의 입장의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십자포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장일치는 설문 조사 책에서는 발견되지만 기술 문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기술 문헌에 들어가면 이러한 이론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앞뒤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얽힌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JED와 P에 관한 전체 논의에서 신명기는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몇 년 동안 신명기 연구에서 이 전체 문제, 특히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는 문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연대가 전체 JEDP 이론에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저자와 연대에 대한 논의에서 통찰력을 얻고, 저자와 연대에 관한 보다 최근의 발전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벨하우젠의 입장에 맞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무기를 실제로 제공하는 신명기의 날짜입니다.

E. 벨하우젠 학교의 신명기에 대한 접근: 요시아의 개혁 시대에 기록된

신명기 ca. 기원전 621년

이제 먼저 벨하우젠 학파의 관점에서 신명기의 저자와 연대를 살펴보자

. 그것은 무엇입니까? 배경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 신명기는 그 자체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에서 기원한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이 책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자료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 19세기 초까지 수년 동안 그것을 모자이크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신명기 개발의 모세 기원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다소 최근의 발전입니다.

1805년과 1806년에 빌헬름 데 베테(Wilhelm de Wette)라는 사람이 비평 학자들의 견해를 지배해 왔던 견해를 내놓았는데, 열왕기하 22장에 따르면 요시아 시대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신명기와 동일시된다. 이제 그 자체로는 크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책은 신명기와 동일시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책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열왕기하 22장에 기술된 대로 기원전 621년경 요시아 시대 직전에 기록된 것이다. 드웨트는 벨하우젠보다 앞서서 신명기가 요시아 시대 직전에 유래된 율법서라는 견해를 받아들였다. 즉, 모자이크로 표현한 것은 “경건한 사기”입니다.

요시아 시대 직전에 이 책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전체 JEDP 이론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질문 중 일부를 아주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지만 논증의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JEDP 시퀀스의 한

측면인 벨하우젠 이론의 이면에 있는 힘은 그가 서로 수렴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논증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JEDP 원본 문서의 순서에 관한 그의 주장의 한 측면은 해당 문서 내의 법적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J소스, E소스, D소스, P소스의 법적 자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처에 포함된 법적 자료를 비교하면 발전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체 전개 순서에서 시간에 관한 한 고정된 점은 기원전 621년으로 작성된 신명기의 날짜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배치된 법적 자료는 물론 621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론에 따르면 신명기 이후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은 기원전 621년 이후에 와야 합니다. 그러나 참조점은 열왕기하 22장과 BC 621년경 요시아 왕의 치세에 유래한 율법서와 신명기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 신명기와 언약 법전

이제 이 접근 방식에서 신명기의 주요 법률 부분은 12장부터 26장입니다. 법적 자료는 실제로 12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명기 법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오경에 나오는 다른 법전과 구별되는 “신명기 법전”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코드인 신명기 12-26장이 있습니다. 벨하우젠은 그 법전이 기원전 621년이나 그 직전 요시아 왕 시대에 유래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 법률 자료를 구약성서의 다른 법률 자료

그룹과 비교하여 이러한 다른 법률 그룹은 다른 시점에 속하며 이러한 기간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다른 법률 자료 그룹 중 가장 초기의 자료는 “언약의 책”, 즉 당시 종종 “언약 법전”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20-23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언약 코드인 출애굽기 20-23장은 J나 JE에게 할당됩니다. 이제 비평가들은 종종 J와 E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약 코드가 J의 산물인지 아니면 J와 E의 조합의 산물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J 또는 JE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23장에는 예배의 집중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배의 중앙집중화는 전체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주목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 곧 너희 양과 염소와 소를 드리라. [이제 어디로?]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곳마다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연장으로 하면 더럽히느니라 그리고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라. 네 벌거벗은 것이 그 위에서 드러날까 두렵다.” 그러나 제단은 이 규례대로 만들되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한 곳에는 이 규정대로 세울 수 있느니라. 이것은 중앙 집중식 예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관한 비판적 사고 학파의 표준 주석 중 하나는 ICC 시리즈(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의 SR Driver의 주석입니다. 이는 벨하우젠

접근 방식의 신명기에 관한 일종의 표준 교과서입니다. 그는 136페이지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대한 주석이지만 우리가 방금 언약 법전에서 본 구절인 출애굽기 20~24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가 내 이름을 두는 곳에' 아무 곳이나 불이라고 지시하셨다. 내가 네게 가서 네게 복을 주리라' 법은 아주 일반적으로 의미됩니다. 그 의도는 땅의 어느 곳이나 제단을 세우는 것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제단은 어디에나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신명기 뒷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제한이 수반된 중앙 집중화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G. 성결 코드 & P JEDP 진행의 요점으로 돌아가려면 621년에 작성된 신명기 코드와 언약서에 표현된 J 코드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4장까지를 “성결법전” 이라고 부르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성결법전은 때로 문자 “H”로 불립니다.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24장까지의 법적 자료를 보면 신명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현재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 그러나 신명기 전후 어느 쪽이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언약 코드,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와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개발된 성결 코드를 얻습니다.

마지막 으로 사제법전인 “P” 가 있습니다. 사제법전은 포로 기간(

기원전 550-450년) 중이나 그 이후에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621년에 살았던 요시야 시대보다 100년 이상이 지났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출애굽기 25~31장, 출애굽기 35~40장, 레위기 1~11장, 민수기 25~36장 및 기타 작은 부분이 포함됩니다. 즉, 이 제사장 법전은 유배 당시나 그 이후에 나온 것으로 오경을 통해 흩어져 있는 부분에서 발견되는 "P" 문서의 법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코드의 상대적인 연대 측정은 벨하우젠 이론의 필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벨하우젠의 이론은 이스라엘의 종교 발전에 대한 이러한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코드의 상대적 연대 측정은 사용된 논증 라인 중 하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순서대로 배치하여 종교의 발전을 입증하는 논증의 핵심 라인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몇 분 전에 ICC에서 언급한 신명기 주석서의 14페이지 로마 숫자 XIV에 대한 Driv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H, 성결법전에서와 같이; P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이는 JE 법률의 확장이다.” 그리고 여기 JE의 확장으로서 P가 있습니다. P는 JE를 따라 확장합니다. D는 JE의 확장이다. D는 여러 측면에서 성결의 법칙과 평행하며, 실질적으로 성결의 법칙과 평행하며, 다른 평행법과의 움직임 포함합니다. 법의 움직임은 실제로 P에서 성문화된 의식 준수 및 제도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P"에 대한 암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에서는 때때로 특정 일을 예상합니다.” 그는 “

신명기가 JE에 의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P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이 책들의 입법적 질이 역사적 부분을 통해 정확히 동일한 문제에 주어졌다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유주의 자료의 장점을 칭찬하기 위해 권위 있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HJN Callow Smith 히브리어 법에 관한 책; 성결 코드 & P

그는 다른 책을 언급했지만 벨하우젠 전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JN Callow Smith의 *히브리어 법의 기원과 역사*. 이제 저는 그 일에 대한 스미스의 논평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39쪽에는 “신명기 법전”이라는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 율법 발전의 다음 단계는 신명기 법전, 신명기 1장 1절과 6절로 대표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43페이지에서 그는 “이것은 [신명기 법전]이 이전에 존재했던 법전을 개정하고 확장한 것입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코드는 언약 코드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에서 다루는 특정한 특정 유형의 법적 사건들과 어떤 유사점이 있으며, 이 법들이 나중에 신명기에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논하면서도 두 코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차이점을 보여줄 것이다. 신명기 법전이 일반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언약 법전이 채택된 지 적어도 200년이 지났습니다! 동일한 법적 자료의 표현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을 볼 때마다 당신은 다른 법전을 고려하여 한 법전의 공식화를 수세기에 걸쳐 나누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코드를 통해 해당 프레임워크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장의 뒷부분에서 그는 예배의 중앙 집중화에 대해 논의합니다.

신명기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법전(그리고 그 내용은 12장에 있을 것임)은 모든 공적 예배와 친교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중앙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법입니다.” 예배의 중앙집중화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추가한 새로운 것입니다. 그는 5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가 집중된 것은 히브리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신명기 법전에 대한 그의 결론. “신명기 법전은 언약 이론을 확장하고 개정한 것입니다. 종교를 세 가지의 초점으로 삼아 이스라엘 전체의 발전과 사회, 경제,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배 당시의 성결법전을 논한다. 이 코드가 다른 코드, 특히 규약 코드와 P 코드를 자주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코드 의 독립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나는 성결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제법은 두 문서 중 더 큰 부분을 구성합니다.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코드도 복합적입니다. 이는 이전의 여러 도덕 규범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법전은 에스라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일단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과 그 땅에 사는 외국인 사이의 모든 결혼을 개혁했습니다. 따라서 P 코드와 에스라 시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반적인 진행을 연습합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고려하여 훨씬 더 복잡한 질문과 세부 사항에 들어가지만 이론의 일반적인 진보적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I. 맨리(Manley)의 반대: 예배의 집중화 이제, 특히 이 문헌의 일부에서 발전된 모든 상세한 주장을 읽을 때 그것은 인상적인 이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Manley, *The Book of the Law*와 같은 책을 읽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쓰여진 내용에 대해 상세한 비교를 제공하고 이러한 많은 주장을 세부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칙이 벨하우젠이 도출한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정말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Manley의 책은 그 자료가 그러한 주장과 결론을 실제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원생들이 Manley의 *The Book of the Law*를 읽고 관련된 자료의 성격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상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신명기 법전을

요시아 시대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와 동일시하고, 7세기에는 예배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세기, 그것은 신명기 법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중앙집권화 사상은 이때 창시되었는데, 당시에 유래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규약에서는 그렇지 않은 반면 예배의 중앙집권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앙집중화는 전체 벨하우젠 가설의 초석입니다. Wellhausen은 Wellhausen의 철학적 진술(368페이지)에서 자신이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로 이 점에서 Graf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문화의 중앙집중화로 돌아가서 그것으로부터 특별한 차이를 추론합니다. 나의 모든 입장은 나의 첫 번째 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즉,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닌 예배의 대변화에서 예언의 권위자들이 맡은 역할입니다.” “나의 모든 입장은 나의 첫 번째 장에 담겨 있으며, 나는 항상 예배의 중앙집권화로 돌아갑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첫 장 17페이지와 그 다음 책의 첫 문단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성소의 하나됨은 원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디게 성장한 것인데, 성전 건축에 앞서서 전적인 합법성을 지닌 성소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소의 모든 부분은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히브리 사람들이 물려받은 유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신명기에서는 예배의 집중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실 기원전 621년은 벨하우젠 이론의 고정점이 되고 중요한 고정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예배의 집중화가 신명기 12장의 주요 요점입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그것은 이 전체 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코드 사이에 실제로 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시간이 시점에서 그것을 집어들 때 그것에 대해 철저히 논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검토

지난 시간이 끝날 무렵 우리는 신명기의 날짜와 신명기를 요시아 시대에 발견된 율법과 동일시하는 것이 JEDP 문학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벨하우젠이 공식화한 오경에 대한 비판적 접근. 나는 신명기를 요시아 시대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전체 이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끝날 때 나는 벨하우젠 자신도 자신의 논문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신명기를 요시아와 연결시켰고, 그가 느낀 예배의 집중화 이론은 신명기에서 강력하게 옹호되었다. 그는 요시아 시대부터 예배의 중앙집권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J. JEDP 이론에서 신명기의 중요성 이제 그 지점을 살펴보고 JEDP 이론 전체에서 신명기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몇 가지 간단한 인용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아직 모르신다면 알아두면 좋은 책입니다. HH Rowley가 편집한 *The Old Testament and Modern Studies* 라는 책입니다 .

*구약과 현대 연구*에는 구약 연구의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구약 연구를 조사하고 금세기에 취해진 접근 방식을 요약하는 에세이 모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WF Albright의 “팔레스타인 구약 고고학”, North 교수의 “오경 비평”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Snipe의 “역사 서적” ; 아이스펠트(Eisfeldt)의 “예언 문학” ; AR Johnson의 “시편” 등. 나는 그것을 모두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는 일은 구약 연구의 모든 다양한 분야를 취하여 1950년대까지의 연구를 요약하는 요약 기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지난 세대의 구약 연구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려는 훌륭한 에세이 모음집입니다.

GW Anderson이 쓴 기사 중 하나(283페이지)에는 히브리 종교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는 벨하우젠의 입장과 그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벨하우젠 연대기 체계의 핵심인 신명기의 날짜와 성격에 관한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때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는 벨하우젠 연대기 체계의 “종석”입니다. 그는 신명기의 연대

측정과 관련하여 논쟁이 치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심각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이론의 전체 구조가 약화된다” 고 덧붙인다. 즉, Wellhausen을 주로 따르는 GW Anderson에 따르면 기원전 621년에 Wellhausen이 신명기를 배치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이론의 초석에 도달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날짜를 노크할 수 있다면 전체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론의 전체 구조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문학적 비평적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

HH Rowley 자신은 JEDP 입장을 요약한 작은 책인 *The 구약의 성장* . 이는 기본적인 Wellhausen 소스의 중요한 입장에 대한 일종의 소개입니다. 29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법전은 오경 비평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신명기 법전과 관련하여 다른 문서들의 연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인 B C 621년과 요시야 시대이며, 다른 법전의 상대적 날짜는 신명기의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다가 해당 코드는 다른 코드보다 확률이 더 높아 날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물론 요시야 개혁의 기초가 되는 율법서가 신명기였으며 그 책이 당시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신명기의 연대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요시야의 율법서와 연결시킵니다.

표준적인 비평적 소개서는 Dr. Otto Eisfeldt의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입니다. 벨하우젠 전통에서 구약성서에 대한 가장 정교한 소개를 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1965년에 나온 최신 독일어 판의 영어 번역입니다. 171페이지에서 그는 신명기를 요시아의 율법서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연대를 기원전 621년으로 추정하는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이 부분으로 신명기의 큰 부분이 그리고 오경의 다른 구성 부분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는 고정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DeWette의 논제는 오경 비평을 교회와 회당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 오경의 대안적 연대를 그 중심에 두기 위해 부착할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요점' 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정점을 말하자면 전체 구조의 '아르케메데스적 점' 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날짜는 특히 오경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약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르케메데스는 그리스의 수학자인데, 아르케메데스의 점은 다른 것을 결정하는 점이다. 즉,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고정된 출발점, 즉 입장점인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제 내가 끌어내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연대에 관한 모든 문제는 확실히 매우 중요하지만 결코 확정되거나 합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 특히 오늘날 신명기의 날짜에 관한 최근 논의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체 주제는 매우 유동적이며, 20년 전 앤더슨의 진술을 받아들인다면, 신명기에 대해 심각한 질문이 있다면 전체 구조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입니다.

L. JEDP 이론에 대한 도전 나는 여기서 개요를 가지고 작업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제 로마 숫자 I로 시작했습니다. “저작자와 날짜: 비판적 접근법에 대한 조사.” 대문자 “A” 내가 당신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방금 결론에 도달한 “벨하우젠 학파의 이론”이었습니다. 대문자 “B” “다양한 방향에서 고전적인 벨하우젠 입장에 대한 도전”입니다. 1. 그 아래에는 “포로 이후 기간의 옹호자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벨하우젠 이론에 대한 도전은 다양한 방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벨하우젠 입장을 옹호한 이래로 신명기의 날짜는 결코 확정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논의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더 일찍 밀고 싶어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모자이크라고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직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들이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이곳이 책 자체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이곳이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론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입니다.

당신 *이 읽으면 구약과 현대 연구*, “오순절 비평”에 관한 기사에서 당신은 그 기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오경 비평”입니다. 또한 Thompson의 소개 자료에서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일부 얻을 수 있습니다. Cragie의 소개 자료보다 Thompson의 소개 자료에서 더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신명기 비평의 입장을 잘 살펴보고 싶다면 EJ Young의 『*구약개론*』의 서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 K 해리슨의 저서가 더 최근이고 더 상세합니다. 즉 RK 해리슨의 *구약 입문*입니다. 다양한 중요한 위치에 대한 좋은 조사를 제공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광범위한 내용, 몇 가지 이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을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유배 이후 날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RH Kennett입니다. 그는 *신명기와 십계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포로기 이후 학개나 스가랴 시대에 신명기의 날짜를 제안했습니다. 즉, 포로 이후 날짜는 기원전 520년경이나 그 일반 지역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주장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테이프가 잘려있습니다]

Dawn Cianci 와 Ted Hildebrandt 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